

가평군

디딜방아놀이

·
·
·



디딜방아 놀이

1. 전승지

가평군 설악면 일대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가평디딜방아놀이』는 외롭고 소박한 취락

성 산악화전민들의 애타게 고달팠던 삶속에 잠긴 애환을 담고 있는 놀이이다. 옛부터 끈질기게 굶센 기질로 지새운 노동<생활양식>속의 멋과 맛, 그리고 춤과 노래가락 섞인 흥겨운 토착성 민속을 사라져간 망각의 피안에서 되찾아 내어 이 고장과 함께 머물게 하려는 선택성의 창작놀이이다.

이 놀이는 북한강 남쪽 연안에 시간이 멈추고 간 고도와도 같았던 옛미원(현설악면) 마



을에서 전수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선대들의 손자욱 뺨질거리는 유품들을 모아 그 기물들을 가지고 반평생을 살아온 노령층으로 하여금 역사 증언을 위한 출연을 시도해 원형을 되살려 남겨 놓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2) 놀 이

■ 줄거리

첫째마당(入場)-5분

한울타리어성 농악대가 앞장서서 입장하고 그 뒤를 이어 옛 곡식의 타작.방아찝기등의 영농생활 도구를 지니고 전진하는 마을 사람들이 제자리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부터 서막을 열게된다.

둘째마당(타작, 방아찝기)(노래, 춤)-17분

- 소리꾼들의 매우 구성진 <방아타령>이 불러지면서 동시에 태질,도리깨질.키질등 타작광경이 시작되고 넘어가서
- 경쾌한 <작은방아타령>으로 이어지면서 ~나무절구,디딜방아도 실감나게 콩덕콩 콩덕콩 ~ 찢여진다. 이어서
- 흥겨운 <보리타작노래>로 접어들면서 부터 동작이 빨라지고 흥겨움이 실컷 돋구워진다.
- 그렇게 두메산골.산사람들이 정성껏 거두어 드린 나락곡식으로 마련한 『시루떡』 고사장 앞에 모여들어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며 마음껏 술통을 비우듯 목을 적시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셋째마당(고사염불 풀이)-5분

- 고사염불풀이 끝은 여전히 능통한 시문으로 긴사연으로 엮어지는 <가평농사풀이>를 즐기고 주려 <우리고장 가평땅에

연년풍년 들게 하옵소서>라는 축원과 함께 팽가리를 두들겨 댄다.

- 그런가 하면 건드러진 <풍년가노래>가 걸드러져서 『보리고개』넘기기의 시름을 한결 잊게해 주었을 것이 뻔하다.

네째마당(마무리, 퇴장)-3분

그렇듯 얼큰히 취한 마을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기물을 간추리어 농악대 소리에 맞추어 어깨춤을 동실동실 두둥실 추면서 신명났던 한마당 축제를 마무리 하듯 뒷풀이 길을 바쁘게 서둘게 된다.

■ 고증내용

- 우리조상들의 영농생활 도구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했던 디딜방아와 관련된 민속놀이는 계승발굴이 거의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창작적으로 그재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지금에 와서는 거의 <골동품>화 되어있는 희귀가치의 그 풍물들을 찾아모아 그것도 마지막 남은 기량소유자들을 동원해서 출연케하여 선대들의 고귀한 숨결과 거룩한 얼을 되찾게 하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 방아에는 손으로 찢는 절구방아,발로 찢는 발방아,소로 찢는 연자방아,물로 찢는 물레방아가 있는데 발방아를 우리 가평 지방에서는 『디딜방아』라 부른다.
 - 넓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여러일꾼들이 흥겨운 타작노래,방아타령을 메기고 받으며 디딜방아를 찢으며 흥을 돋우고 찢은 곡식으로 떡과 음식을 만들어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는 고사염불을 걸드려 축제를 지내고 마을사람들이 어울리어 한바탕 노래와 춤을 벌인다.
- ※참고문헌: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술총서 8 - 한국의 축제

3. 구 성

- 역사고증인
신영범(한학자, 가평문화위원장)
- 가평민속예술연구회장
최인화(향토사가, 문화원부원장)
- 가평민요발굴지도
도명스님(민요학자)
- 디딜방아놀이 연출자
정동화(문화원사무국장)
- 노래소리꾼:김경철(가평민요동우회장),
강옥자(부회장)외 회원일동
- 출연단
가평군 설악면 주민일동

4. 등장하는 농요

1) 방아타령

에 - 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반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콧집이 앵돌아졌다.

1. 에 - 타 좋구나

북한강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엇차
닿감는 소리 원포귀병이 에헤라 이이니란 걸

※ 에 - 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널과 날과 닳이나 감아라
북을 울리어라 물떼가 막 늦어 간다.

2. 에 - 타 좋구나

유명산이 높은 봉은 구름밖에 솟아있고 해외
소상 떠가는 배는 벌려의 오호주요 운간으로
날아드는 새는 서황모의 에헤라 칭조로다.

※ 에 - 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삼산은 반락에 모란봉이요.

이수중복은 에헤라 능라도라.

3. 에 - 타 좋구나

장락홍록 봉바람에 넘노나니 황봉백접 붉은꽃
푸른꽃은 산용수새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우
는 새는 춘광춘흥을 에헤라 자랑한다.

※ 에 - 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널과 날과 닳이나 감아라

2) 잣은방아타령

1. 얼씨구 절씨구 잣은 방아로 둘러라. 아 하
에 - 요 - 데 여라 방아흥이 - 로 - 다.
정월이라 십오일에 귀머리 장군 기코배기 액
애 - 요 - 데
여라 바이흥이 - 로 다

2.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아 하 -
에 - 요 - 데여라 방아흥이 - 로 - 다.

3. 삼월이라 삼짖날 재비새끼 명미- 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에라디여 ---
등대줄이 떴다. 아 하
에 - 요 - 데 어라 방아흥이 - 로 - 다.

4. 사월이라 초파일관등하러 임고대 ----
사면보 - 살 장안사 아가리 병실 잉어등에
등대줄이 떴다. 아 하
에 - 요 - 데 어라 방아흥이 - 로 - 다.
오월이라 단옷날 송백수양버들 가-지
높다랗게 그네 베고 작작 도화 늘어진가지
백능버선에 두발-길로에 후리쳐 툽툽차-니
낙엽이 등실 - 떴-다. 에라디여 -----
에 - 요 - 데여라 방아흥이 - 로-다.

3) 보리타작노래(옹헤야 타령)

옹헤야 어절씨구 잘도한다 옹헤야 단들이만
옹헤야 하더리도 옹헤야
열춤이나 옹헤야 하는듯이 옹헤야 팔구월에

응혜야 피중해서 응혜야 그해삼동 응혜야
 다지나고 응혜야
 익년이월 응혜야 재초하고 응혜야 삼월지나
 응혜야 사월들제 응혜야 사월남풍 응혜야 대맥
 황을 응혜야
 푸른잎과 응혜야 푸른종자 응혜야 죽은듯이
 응혜야 변해져서 응혜야 황앵같은 응혜야 황색
 되어 응혜야
 오뉴월에 응혜야 수확하여 응혜야이와같이
 응혜야 타작하여 응혜야 응게등게 응혜야 제어
 놓고 응혜야
 삼동삼춘 응혜야 양식함께 응혜야 이리므로
 응혜야
 오월농부 응혜야 팔월신선 응혜야 함이로다
 응혜야
 응혜응혜 응~ 어쩔씨고 응혜야 ——
 고사염불(가평농사풀이)

4) 풍년 가

1.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 지화 좋다 얼씨구나 줌도 좋으나
 명년춘삼월에 화류노절기지

2.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 연년이 풍년이로다.

※ 지화 좋다 얼씨구나 줌도 좋으나
 명년하사월에 관등놀이가지

3.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도 있는가
 놀지말고서 농사에 힘써시다.

※ 지화 좋다 얼씨구나 줌도 좋으나
 명년오뉴월에 락족노릴 가지

4. 저건너 김풍헌 거동을 봐라
 노적가릴 쳐다보며 춤만 덩실 춘다.

※ 지화 좋다 얼씨구나 줌도 좋으나
 명년동지섯달에 설경노릴 가지

5. 봄이왔네 봄이왔네
 삼척리 이강산에 봄이 돌아왔네

※ 지화 좋다 얼씨구나 줌도 좋으나
 봄돌아 오면 화전 노릴 가지

5. 고사염불(가평농사풀이)

① 국태민안이 범윤전 시회 연풍년이 도리
 들때 행동은 조선국에 경기도 가평군은
 마련할제 화악산은 주산이요 용문산은
 안산이라 보납산은 청용이고 불기산은
 백호되니 북한강이 둘렀으니 어어 천지
 가 무궁이라 원안은 금일이요 사반은 시
 개로다. 행동은 조선국에 경기도라 가
 평군은 깊은산골 육면이요 인구는 육만
 명 시골땅에 사느라니 농사 밖에 또 있
 는가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한번
 잘 짓지고 천지제를 오리오니 천지신명
 이 시여 토지지신 왕임하여 감동하옵소
 서 시혜용왕 물을 주고 토지지신 복을
 주어 일취월장 잘잘하게 연연히 풍년을
 주옵소서

② 경상도 토용반에 안성유기 국달이며 광
 주군은 사기그릇 은쟁반에 금쟁반에 만
 잔지수 차렸으니 없는 것은 많사옵고 있
 는것은 적사오니 소료를 대료로 받옵소
 서 내정성이 그러하니 내 정성이 어떠하
 나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 감천이라

③ 인간이 하옵는 건 밥을 먹어 촌부촌가
 모릅니다. 제한 끝에 명을 주고 이안
 끝엔 복을 주옵소서 명을 주시거든 동방
 석의 명을 주고 복을 주시거든 중국부자

왕지에 석수이 복을 주옵소서 명을 주고
복아니 주면 복 없이는 어찌 살리 복을
주고 명아니주면 명 없이는 어찌 살리 명
과 복을 같이 받아 선 팔십 후 팔십 일
백예순을 수명장수하게 하옵소서

- ④ 가평군에 사노라니 농사밖에 또 있는가
농사 한철 지어보세 쌀농사에 본을 받아
앞뜰에다 논을 사고 뒤뜰에다 밭을 사서
물이 충충 수답이요 문전옥답 고래실에
회전수전 물망답에 오곡잡곡 씨를 뿌렸
더니 여주이천 자치벼 김포통진 밀다리
꺼어 부드득 쟁기 찰 울긋불긋 대추 배
숨이 길어 셋님베 환갑 진갑 노인내 우
물앞에 샘다리 그런 베를 심으시고 어떤
콩을 심으셨나 만리타국에 강남콩 이팔
청춘 푸르레 알록달록 피이지콩 울긋불
긋 대추콩 도감포수 감정콩 방정맞다 주
니리콩 독수공방 홀아비콩그런 콩을 심
을시고 어떤 양팍 심으셨나 가을같이 봄
바리 움모버러 심오버러 귀리 밀을 곁들
이 참깨들께 드르륵 깨을 곁들어 참깨
들께 두르륵 깨 아주까리 피마주를 영성
드문 심어놓고 주인 부인 마나님은 뒤터
전 돌아가서 오이 호박 건드냐고 월령성
두 피에다 마늘에다 부추까지 심었으니
시해용왕이 물을 주고 토지신이 복을
주어 낮이면은 양기 썩고 밤이면 찬이슬
맞아 일취월장 잘자란 곡식 구 시월이
넉넉되니 동네 방네 선머슴들 술잔이나
먹은 김에 곰뻐이 물고 잠뱅이 입고 고
초상토 간드랭 간드랭 무독다리 후떡격
고 질같이 넘음 배를 반만 중등 움켜쥐
고 이리 슬슬 비어다가 이논두렁에 걸쳐
놓고 저 논두렁에 걸쳐 놓고 범같은 사
내들은 지게 받쳐 저드리고 앵두같은 부
인네는 파리받쳐 여들리고 주인부인 마

나님들은 구경나가셨다.

※〈시간없어 뒤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 ⑤ 떨어진 곡식이깝다고 치마 앞에다 주섬
주섬 주어다가 어허 그거 못쓰겠다. 우
마길동 신겨보자 없던 우마며졌드냐 우
곡뿌리 작백뿌리 노구걸이 별벼기 쌍굴
리 살쪽집이 안쪽집이 반쪽집이 꼬리엇
는 동변소 갈때 빈밭이 드러 올때는 찬
밭이요 앞에가면 앞노적 뒤에가면 뒤노
적 몸애 노적 쌍노적 시방집이 보이지
않게 멩그리게 췌었으니 난데없는 봉학
새리 이러할 훗 날아와서 큰봉에다 자리
잡고 적은 봉에다 생키를 쳐 한 날개를
툑치면은 수천석이 쏟아지고 또한 날개
를 푹치며는 수만석이 쏟아진다. 급우장
지되었으니 이결두었다 무얼하니 집이
나 한재 지어보자 자좌오향 남향 판에
벌엔 터에다 집을짚때 호박주추산호기
등 금피로다 도리걸고 활금으로 보는 언
저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추녀
를 달아 천년가화 만년불패 보기 좋게 이
어놓고 지게로다 줄을 늘여 내귀에 풍경
을 달아 동남풍 불어올제 왕경덜렁하는
소리 만고복록이 떠드러웁니다

(1) 후렴불

(떡이고 받는 형격이어야 하나, 계속 비나
리가 느리게 끌고 간다)

염불이며는 동참이라 시방시조님네 영감마님
일평생을 시시지하면 소원성취가 무엇이요. 평
생에 잡수 마음 가진복록에 효자충신 열부열녀
가 발원이신데 연만하신 노인네는 잘 잡수고 잘
노시다. 왕생극락이 발원이요 년소하신 젊으신
네 없는 자손은 생남발원 있는 자손은 수명장수
어린자손 잔병없이 고이곱게 잘 길러서 만수복
영을 받으소서



경 축

100개입기념
제 7 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제 7 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農者天下之大本

장갈 노닐곳
무천시문경

東豆川

農者天下之大本